

무등종합복지관 ‘밤실마을 한가위 콘서트’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금희)은 최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장수어린이공원에서 ‘밤실마을 한가위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재광나주향우회, 소외계층에 쌀·과일 전달



재광나주향우회(회장 김보근)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일 나주지역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웃간 사랑의 정을 나눴다. <재광나주향우회 제공>

대한기계설비건설협, 복지시설 성금 기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봉)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광주 살례시우수도원’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에 사랑나눔 성금을 기탁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손해보험협 호남본부, 노인용 야광지팡이 전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12일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장 이우진)을 방문해 교통안전용품인 노인용 야광지팡이 200개를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외로움 느낄 유학생들과 따뜻한 정 나누고 싶어”

‘세계청년과 함께하는 추석한마당’ 참가 송원대 임의찬씨

“우리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데, 고향을 떠나는 유학생 친구들은 오히려 더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의찬(20·송원대 사회복지학과 1년)씨는 올해도 여김없이 ‘2016 세계청년과 함께하는 추석한마당’에 참가하기로 했다.

‘2016 세계청년과 함께하는 추석한마당’은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청년센터 the숲과 유니버설문화원, 광주국제교류센터 등이 추석명절 광주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설 명절에도 ‘아시아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등 설날과 추석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광주청년들의 문화교류를 위해 열리고 있는 행사다.

임씨는 이 행사에 17살이던 2013년 추석 때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자신의 친구들과

2013년부터 명절때마다 참석

추석·전통문화 알릴 절호 기회

지난해 미안마 프로젝트 진행도

2~4명씩을 설득해 데려와 유학생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명절이 길어지면 광주에 온 외국인 친구들은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낄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정을 나누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한국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친구들이 모여 각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게 됩니다. 앞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친구들과도 행사에 참



여했는데, 그 친구들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치 그 나라를 다녀온 느낌이 들어요.” 사실, 임씨가 명절 때마다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상무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3년 7월 광주 시교육청 ‘청소년 해외봉사단’으로 미얀마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 친구들과 어울렸던 추억이 가시질 않아 바로 두 달 뒤 추석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또 지난해에는 ‘청소년 해외봉사단’ 1~3기 친구들이 모여 모금을 벌이는 ‘미안마 1500불 프로젝트’를 진행, 현지 미안마 친구를 광주로 초청하는 행사도 가졌다.

“솔직히 동남아 친구들에 대해 한국 친구들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더 많은 광주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이들을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의찬씨는 “한국의 명절과 전통문화를 세계청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는 것도 좋지만 하루라도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에게 광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노벨평화상 수상 동티모르 벨로 주교 광주 온다

오늘 윤장현 시장과 면담

노벨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카를루스 벨로 주교(사진)가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주·인권 이야기를 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13일 광주 한 음식점에서 벨로 주교, 일리디오 다 코스타 노동부 장관 등 동티모르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벨로 주교가 윤 시장과 면담을 요청해 만찬이 성사됐다고 시는 전했다.

벨로 주교는 동티모르의 정신적 지도자로 1996년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윤 시장은 동티모르가 독립하기 전인 1996년 사제로 국제청년캠프를 진행하면서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주교



계와 시민 도움으로 5만 달러를 마련해 동티모르에 전달했다. 독립 후 사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이 윤 시장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 보훈병원과 보건진료사업, 의료진 수련·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부터 동티모르 K2H(Korea to Heart) 프로그램으로 프레데리코 데 마토스씨가 5개월간 광주시청에 파견 근무하는 등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벨로 주교 등은 광주에서 동티모르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 집전, 추석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고 오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빛원전, 추석맞이 ‘노사합동 전통 시장 가는 날’ 행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양창호)는 최근 추석을 맞아 영광매일시장에서 ‘노사합동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열었다.

한빛본부는 노사합동으로 양창호 본부장장과 김갑수 본부노조부위원장 등 직원 70여명이 참여해 1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17곳에 전달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한빛본부 전직원들이 매달 기부한 러브펀드 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은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리는 행사다.

한빛본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영광매일시장의 ‘꿈과 희망의 장터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전통재래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매년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소통·개방으로 열린 교정행정 실현”

최강주 광주교정청장 취임

“소통과 개방의 교정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제30대 광주지방교정청장에 최강주(54) 법무부 서울구치소장이 12일 취임했다. 최 청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반듯한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열린 교정행정으로 지방교정청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 출신인 최 청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공안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을 수료했다.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교정기획과장·공주교도소장·광주교도소장·인천구치소장·서울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 청장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격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 일선 경험에서 우러나는 현장감과 탁월한 기획력으로 교정행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남주 호남대 스포츠학과 교수

장애인 스포츠 권익보호위원회

정남주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광주 장애인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해 선수 권익 보호를 대변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인사

- ◆광주지방보훈청 ◇5급 전보
 -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이영주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임경환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이승호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영식 ▲국립임실호국원 관리과장 김재호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장 나상운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 월례회=13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회장 이철환) 이화 월례회=20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회장 이보희) 이화 월례회=22일(수)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문회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야유회=24일(토) 오전 8시 완도 수목원 등 접수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

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 불교합장단 창단에 앞서 합장단원으로 활동할 분자. 무각사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빚니다

<p>201호 故조자연 님(여/90세)</p> <p>子/子婦 : 이상우, 상수/장정희, 성삼/이현진, 성군/김지연 女/婿 : 이이순/장진규, 이희양 *발 인 : 9월 14일 *장 지 : 화순시평선영 *연락처 : 227-4381</p>	<p>401호 故원란 님(여/82세)</p> <p>子/子婦 : 이상우, 상수/장정희, 성삼/이현진, 성군/김지연 女/婿 : 선지현/이세중, 현숙/전기원, 현자/이상민, 명숙 *발 인 : 9월 14일 *장 지 : 나주반남선영 *연락처 : 227-4383</p>
<p>101호 故정만석 님(남/85세)</p> <p>子/子婦 : 정희기/심경순, 원만/서미애 女/婿 : 정현순/남수서, 현희/허정귀 *발 인 : 9월 13일 *장 지 : 화순도암선영 *연락처 : 227-4000</p>	<p>102호 故강영자 님(여/75세)</p> <p>子/子婦 : 박영철/강지연, 영국 女/婿 : 박세나/최민철 *발 인 : 9월 1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p>

마음씨 정결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3일(음 8월 13일 戊戌)

<p>子 48년생 돌발적인 위험 요소가 단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니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60년생 애로사항이 생긴다. 72년생 처음에 승세를 잡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84년생 오늘 다루는 것이 일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6,97</p>	<p>午 42년생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면 불리한 현태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54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겠다. 66년생 부주의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78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75,83</p>
<p>丑 4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에 이끌 것이다. 61년생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자. 73년생 지난해에 쌓았던 궁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85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사항에 매진하자. 행운의 숫자 : 25,07</p>	<p>未 43년생 혼동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자. 55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를 낚게 해줄 것이다. 67년생 운로가 길하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79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유익한 여건들이 조성되는 기운이다. 행운의 숫자 : 21,31</p>
<p>寅 50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고 있다. 62년생 결실을 취하는 배가 풍성할 것이다. 74년생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교의 선택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다. 86년생 과격적인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33</p>	<p>申 44년생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어리 된다. 56년생 집착하고 있던 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68년생 아무것이나 전혀 상관 없이 고집지 마라. 80년생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서 중국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06,74</p>
<p>卯 51년생 시러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63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러 남비하지 않도록 하자. 75년생 성취의 길목에 이를 것이다. 87년생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자하는 자세가 양호한 결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20,55</p>	<p>酉 45년생 지혜가 많은 이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취하고 버림에 있어서 실속이 있어야겠다. 69년생 총체적인 일이 일어나리라. 81년생 나올 것은 한정돼 있는데 들어갈 곳은 넘쳐나겠다. 행운의 숫자 : 78,51</p>
<p>辰 40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52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점을 안게 된다. 64년생 입장의 차이가 클 것이다. 76년생 수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8년생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10,31</p>	<p>戌 46년생 반복적인 확인만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58년생 소비적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만 한다. 70년생 사소함에 서 벗어나 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자. 82년생 지금 즉시 실행하자. 행운의 숫자 : 37,79</p>
<p>巳 41년생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53년생 불합리한 판단이니 벗어나야만 한다. 65년생 전문적인 시견과 경향이 요구된다. 77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89년생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9,42</p>	<p>亥 47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빛이 어둠에 의외로 많은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59년생 일관되어야만 유익한 성취에 이른다. 71년생 동선에 주목하라. 83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장애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8,6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팀” ☎010-9790-8237